

“차·화·전은 아직 배고프다”... ‘불타는 코스피’ 상승 견인

〈자동차·화학·전자〉

코스피 3000 시대

〈下〉“실적장세 온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실적장세 전망
美바이든 친환경정책 호재도 한몫

테슬라 전기차 2차전지 제조사인
LG화학·삼성SDI·SK이노 수혜

코스피 지수 상승이 심상치 않다. 전문가들은 올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반도체 종목을 필두로 ‘차화전(자동차·화학·전자)’을 투자 유망 업종으로 꼽았다.

지난 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0.50포인트(3.97%) 급등한 3152.18에 장을 마감했다. 올해 5거래일 만에 200포인트 넘게 상승한 수치다.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지만 올해 지수 상승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동성 장세 → 실적 장세

10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장사 232곳의 영업이익은 183조6000억원으로 전년(131조7000억원) 대비 39.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 상장사 111곳의 영업이익도 지난해(6조1500억원) 대비 44.7% 증가한 8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스피 우상향을 주도했던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코스피가 3152.18에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라며 “경기가 회복되면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면 중간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국이며, 대표적으로 반도체 외에도 소재·산업재 등에서 다양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장세의 선두주자로는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을 앞둔 반도체 업종이 꼽힌다. D램 현물가 급등으로 SK하이닉스에 큰 수혜가 예상되며,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특히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올려 잡았다. 하나금융투자 11만 1000원, 키움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10만원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5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를 20조538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5.1배로 글로벌 경쟁사인 애플(34.1배), 마이크론(19.4배), TSMC(24.3배), 쉘컴(20.9배) 등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분석이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반도체 파운드리 성장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실내용 전자기기 수요 증가, 5G로의 전환,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중국 수요처의 긴급 주문,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촉발한 재고 축적 흐름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기회복 수혜주... ‘차화전’

최근 코스피 3000시대를 이끌고 있는 ‘차화전(자동차·화학·전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코로나19 백신 출시로 인해 경기 회복 기대감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맞물리는 등 호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로 인해 2차전지 제조사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수혜를 입었다면 올해에는 핵심 소재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 전반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100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6년간 자동차 섹터는 실적 부진과 밸류에이션 하락을 지속했다”며 “그러나 최근 현대차그룹이 미래차 산업에 대응

하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자동차 섹터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재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에는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출시를 위해 현대차그룹에 협력을 제안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차 관련주가 들쭉이기도 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쥌 수 있는 유력한 IT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현대차그룹 주가는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또한 국내에는 자동차와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IT, 배터리 업체들이 풍부하고, 한국 정부가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된 규제를 비교적 일찍 정립했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낮아진 유가와 코로나19 특수로 인해 화학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 화학 업종은 플라스틱과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최선호주로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효성화학 등을 꼽았다.

박일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늘어나는 공급 물량을 소화하면서 수요 우위의 수급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 위주로 수요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중국은 지난해 기준 한국 합성수지 수출 비중에서 34%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시장”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동학개미 덕에 증권株 ‘훨훨’... 올해도 ‘장밋빛’ 전망

코스피 증가 3000선 경신
증권주 평균 3.36%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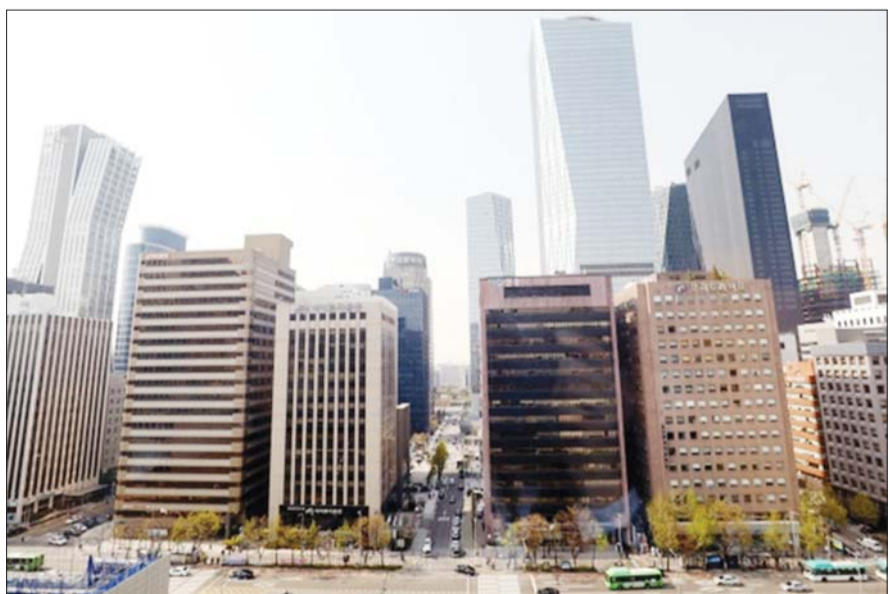
일평균 거래대금 30조 육박
증권업종 실적 호조 기대감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함에 따라 증권사 실적 호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증시 거래대금 급증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증권주의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초로 증가 기준 3000선 경신한 지난 7일 증권주도 일제히 올랐다. 이날 한화투자증권 6.48%, KTB투자증권 6.15%, SK증권 5.68%, 키움증권 3.87%, 유안타증권 3.63%, 삼성증권, 3.32%, 대신증권 1.94%, DB금융투자 1.90%, 한국금융투자 1.84%, 미래에셋대우 1.32%, NH투자증권 0.8%로 마감했다. 증권주는 평균 3.36% 상승했다. 지난 8일 증권주는 1~3%대로 소폭 상승하며 상승폭을 줄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증권주의 상승세가 ‘개미(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증시 열기와 거래대금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월4일 1조310억원, 5일 7284



코스피 3000선 돌파와 함께 증권사들의 실적 호조가 기대되면서 관련주 주가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시스

억원, 6일 1조7293억원 등 총 3조4887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8일엔 5591억원 순매도세를 보였지만 1월 순매수(1조7459억원) 행보엔 변함이 없었다.

외국인은 4일부터 7일까지 4155억원 순매도세를 보였지만, 8일 1조6479억원 순매수하면서 ‘사자’ 기조로 전환했다. 기관 만이 4일부터 8일까지 3조2093억원을 순매도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수익을 가능할 수 있는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주

의 실적 호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은 4일 25조 114억원, 5일 26조5483억원, 6일 29조 9093억원, 7일 27조1828억원, 8일 40조 9095억원으로 총 149조5615억원이었다.

올해 일평균거래대금(29조9122억원)은 지난해 코스피 거래대금 중 최대 금액을 기록했던 12월의 일평균거래대금 약 18조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로 인한 거래대금 급증 등을 들어 증권

주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10일 “지난해 12월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코스피가 2018년 전고점을 뚫고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주식시장 매수세와 거래가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증권사 수익 추정 시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을 20조4000억원으로 가정한 바 있는데, 이는 236%의 시가총액회전율을 가정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증시 상승으로 기초 가정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증권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증권업종의 실적 호조가 올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 시장금리 상승, ELS 조기상환 부진 등 트레이딩 관련 이익 둔화 전망과 더불어 증시 추가 상승 및 일평균 거래대금이 현재 수준을 지속할 지 불투명하다”며 “지난해 증권업종의 높은 순이익 증가율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이익 기여 부담은 다소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염재민 기자 yji1208@

1면 ‘대한항공-서울시’서 계속

매각 쟁점 여전히 산적 권익위 “집중 논의 중”

대한항공은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올해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 마련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송현동 부지의 매각이 그만큼 시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실상 대한항공이 자사에 불리할 수 있는 매매계약시점 관련 조건을 포함하는 만큼, 또 다른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권익위 관계자는 “이제 다른 변수가 생겨 그걸 집중해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쟁점을 아직 밝히기는 좀 그렇다. 곧 타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입을 단았다.

한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지난 5일 열린 2021년 신년 대담에서 “현재 대한항공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만간 조정되는 부분들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협상의 진전 여부를 시사한 바 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